
여성들이여! 일상에 시비를 걸자!!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
소식지 4호

'1312' 는
여성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성주의가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성들끼리
뭔가 신나는 일을 저저르고
싶어 모인 곳이다.

故 고정희 시인을 추모하며....

리정하게 자무는 낯선 거리에서
그대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운명을 수락하듯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갑니다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조차
왜 우리는 단순하게 손잡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질투하는 두 짐승처럼
함께 가는 길에 뒤통 소금을 뿌리는 것일까요

때로 나는 내 자신 속에서
그대와 나를 갈라놓은 내 적을 발견합니다

너는 검은색이고 나는 흰색이야

당신을 향하여 금을 긋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적을 봅니다

시 한편 없이도 살만 찌는 주제에
하하 인생의 깊이와 넓이?

당신을 향하여 거드름을 떠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적을 봅니다

여보세요, 사랑장사를 말로만 하시나요 외로움
같은 거 아시기는 아시나요 마음 좀 어루만질 시
간은 있으세요 구닥다리 소외감 알아보시겠어요
빈 의자 하나쯤 건사는 하시나요

당신의 사랑법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나는 내 자
신의 적을 봅니다.

아암 째째한 인생은 당당하므로 나는 하품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지루하고 지루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게으르고 인색한 여자를 좋아합
니다 나는 삭막하고 황량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단물이 다 빠진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머
리 속에 오직 남자밖에 든 게 없는 여자를 좋아
합니다(좋아하려고 목마 노력합니다)

당신의 행복론에 돌을 던지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적을 봅니다

그토록 자부하는 풍요의 식탁에는 여자인종이
란 메뉴도 있나요? 해방의 만찬이란 식단도 있나
요? 통일 민주 염원이란 조찬도 있나요? 장백산
횡단이란 특식도 있나요? 보수대연합분쇄라는 주
문식단도 있나요?(있으면 어디가 뒹나나요?)

당신의 인생론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적을 봅니다

그러나 때로 나는 당신 속에서
그대와 나를 갈라놓은 당신의 적을 만납니다
당신과 다정하게 마주 앉지만
내 품속에서 슬며시 얼음이 만져질 때
해를 거둬들여 만나고 또 만나도
당신에 대하여 아는 게 없을 때
아무리 코를 킁킁거리어도 들뜬 냄새가 안 날 때
나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적을 만납니다

나는 사랑받는 여자예요, 얼굴에 씨불이고 다니는
사이

앉자마자 나 바빠, 허둥대는 사이
나는 현모양처예요, 십 분 간격으로 집에 전화하
는 사이

나는 수퍼우먼이야요, 잠시도 시선이 안정되지 않
는 사이

여자의 본분은 희생봉사 아니예요, 중간에서 남의
말 뚝뚝 자르는 사이

나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적을 만납니다
(중략)
슬픔의 한 자락 붙드는 모습에서
간간이 주눅드는 인간 냄새에서
두 눈에 가득 고이는 상처에서
나는 동지의 그리움을 만납니다
(하략)

- [무엇이 그대와 나를 갈라 놓았는가] 부분

[고정희 시인의 여성주의 문학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양녀의 훌륭한 학사 졸업논문이
있으니, 문의 하십시오.- 푸하하]

● '1312'는 6월달 이렇게 보냈습니다.●

먼저 6월달은 반성의 달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말시험을 핑계로 정기모임도 잘 안 이루어졌고, 소식지도 이렇게 늦었습니다. 6월엔 상반기 정리모임을 몇차례 가졌었는데,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모임을 평가, 진단하고 방중활동을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6월달 시민모임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6/24-26까지 열린 2회 한일 학생 교류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일 학생이 함께 위안부 문제, 우토로 지역 문제, 북한 동포돕기 등을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6/27에는 고정희 시인의 7주기 추모행사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일의 6월동안 양녀는 이사를 했고, 몇 명은 농활가서 담 흐리고 있고, 몇 명은 계절학기로 맘을 홀리고, 또 두명이나 물건너 갈 준비로 바쁘다. 그외도 다들....

● 새로운 시비쟁이 식구가 생겼습니다.●

영남대에서 총여보다 더 열심히 정신대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기독교학생회 친구들이 그 속에서도 성에 차지 않는 무언가를 풀어내기 위해 '1312'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여성문제에 관심은 있었지만 마땅히 이야기 할 공간이 없어서 답답하다가 드디어 물을 만난 겁니다.

우리 같이 잘 해 봅시다.

새 시비쟁이는 짜루(현숙)와 지영이 그리고 말만 하고 안 나오는 알미운 정민이.

[그러나 7월 첫 모임부터 1312의 실체는 뽀롱났다.]

● 알립니다. ●

하나- '1312' 방중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정기 스터디 모임- 주제는 따로 공고-이 있습니다. 7월 첫 모임처럼 낭창하면 다 적일꺼!

8월 초 아니면 개강 전주에 여성주의 캠프를 가기로 했음.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면서 각자가 관심있는 주제나 방식을 가지고 캠프준비도 병행할 것임.

둘- 통신공간에 들폴모임을 소개합니다.

Now.

참세상에 있던 '이상한 나라'는 문을 닫고 나 2. Hitei 288
우누리에 들폴모임에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61410 74444

ID가 없으신 분은 '1312 양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0616

'1312' 시비쟁이들의 많은 출입을 기대하며....

셋- 7월 9일자 한겨레 21에 '1312'기사(?)가 실렸습니다.

비록 한줄도 채 안되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시길. 그리고 '1312'를 자랑스러워 하기! (윤경이, 지혜언니, 리나 언니 등 아는 사람들 많이 나옴)

필독!!

넷- 드디어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 선배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더불어 매 맞고 힘없는 자들에게 이 법이 공정한 지지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실태 및 대책 그리고 가정 폭력 방지법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1312' 방에 있으니 복사해서 참고하십시오.>

다섯- 농촌활동에 참가하신 시비쟁이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뻥신 여성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흐뭇했습니다.

● '1312' 상반기를 정리하며 ●

지난 겨울에 끙끙대며 이런 저런 문건만으로 모습을 드러내던 여성주의 자치모임이 몇 몇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으로 이제 작으나마 활동도 하고 모임도 여러차례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상반기 평가를 가져본 결과 너무 우리끼리 자족하는 정도의 활동과 모임 뿐이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활동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토론과 수다만이 상반기를 지탱해 온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영남대 내에서 자치모임이 처음이고 더구나 여성운동을 자치모임 형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늘 막막하고, 헤맨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처음이라서 실험단계로 두더라도 앞으로 '1312'의 생사문제가 걸린 만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방학동안 어떻게 '1312'를 움직여 내고 하반기를 준비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성에 젖은 활동이 아니라 실험정신으로 뚝뚝 뭉쳐 새로운 여성

운동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실 영대내에서 여학생운동은 지금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대에서 새로운 여학생운동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